

국민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MBTI 분석

■ 윤 대통령 MBTI 기본 성향 분석

- _ 국민이 생각하는 윤 대통령 MBTI 4가지 속성별 비중
- _ 전반적으로 60대 이상과 다른 성/연령 생각 달라
- _ TK 지역과 다른 지역 간 생각의 차이 존재
- _ 윤 대통령 ‘내향, 외향’에 대한 생각, 직업별로도 달라
- _ 윤 대통령 MBTI에 대한 보수층 생각, 다른 이념층과 달라

■ 국민과 윤 대통령 MBTI 기본 성향 비교

- _ 국민들, 자신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달라
- _ 성/연령별 : 자신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차이 커
- _ 지역별 : 차이 없는 가운데, TK 지역 ‘인식기능’ 격차 적어
- _ 직업별 : 큰 차이 없고, 학생층만 ‘에너지 방향’ 동일
- _ 이념별 : 보수층, 대부분 속성에서 상대적으로 격차 적어

■ 윤 대통령 MBTI 유형화 결과 분석

- _ 국민이 많은 MBTI 유형과 윤 대통령 MBTI 유형 달라
- _ 성/연령별로 다수가 속한 MBTI 유형과도 차이 많아
- _ 이념별 MBTI 유형 비교에서도 다수와 차이 존재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1월 4일(금) ~ 11월 6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윤 대통령 MBTI 기본 성향 분석

국민이 생각하는 윤 대통령 MBTI 4가지 속성별 비중

- MBTI는 아래 그림처럼 4가지 기본 속성(‘에너지 방향’, ‘인식기능’, ‘판단기능’, ‘생활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속성별로 2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 MBTI 또는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개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 기입식 문항을 통해 ‘심리 유형’을 알려주는 검사 방법임
-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외향적(E)’이고, ‘직관적(N)’이며, ‘사고형(T)’이면서 ‘인식형(P)’으로 나타남
 - 에너지 방향 : 내향형(I) 43% vs 외향형(E) 57%
 - 인식기능(정보수집) : 직관형(N) 65% vs 감각형(S) 35%
 - 판단기능(판단, 결정) : 감정형(F) 34% vs 사고형(T) 66%
 - 이행양식, 생활양식 : 인식형(P) 62% vs 판단형(J) 38%

국민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MBTI 기본 성향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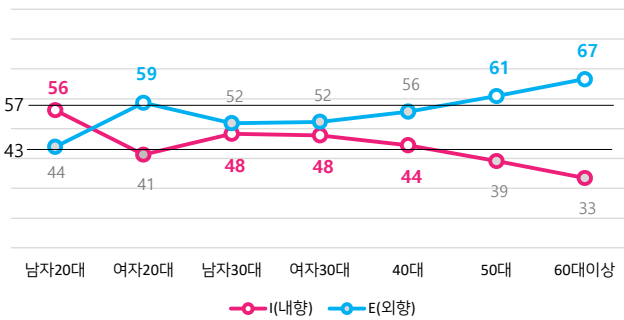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TI 조사결과는,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이고, 사고형이면서 인식형’임
 - : 즉, 에너지 방향 면에서는 조용하고 신중하기보다, 사교적·정열적·활동적이고(외향형 E)
 - : 현재를 중시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하기보다, 미래의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고(직관형 N)
 - :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기보다, 논리적·분석적·객관적으로 판단하며(사고형 T)
 - : 사전계획을 중시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인식형 P)
- ☑ 이번 MBTI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드는 생각, 느낌, 이미지 등이 종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로 보임
 - : 참고로 MBTI 조사는 과학적 심리분석 방법으로 한계가 있음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문 등은 케이스탯 리포트 62호 『한국인 MBTI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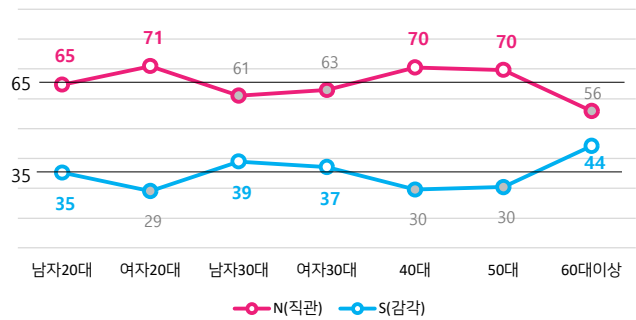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과 다른 성/연령 생각 달라

- 윤 대통령에 대한 MBTI 4가지 기본속성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F(감정) vs T(사고)’ 속성에 대해서는 모든 성/연령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T(사고형)’으로 일치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속성 색깔 숫자, 낮으면 회색 숫자로 표기함
- ‘N(직관) vs S(감각)’ 속성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N(직관형)’으로 생각함
 - 60대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S(감각형)’ 비중이 높음
- 또한 ‘P(인식) vs J(판단)’ 속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성/연령은 ‘P(인식형)’ 의견이 우세하지만, 60대 이상은 ‘J(판단형)’ 의견이 우세함
- 한편, ‘I(내향) vs E(외향)’ 속성의 경우 성/연령별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남
 - 20대 남성은 국민전체 생각(E, 외향형 우세)과 달리 유일하게 ‘I(내향형)’ 의견이 우세함
 - 남녀 30대는 ‘I(내향) vs E(외향)’ 비중이 팽팽하고, 여자 20대와 4050세대는 국민전체 의견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높은 수준으로 ‘E(외향형)’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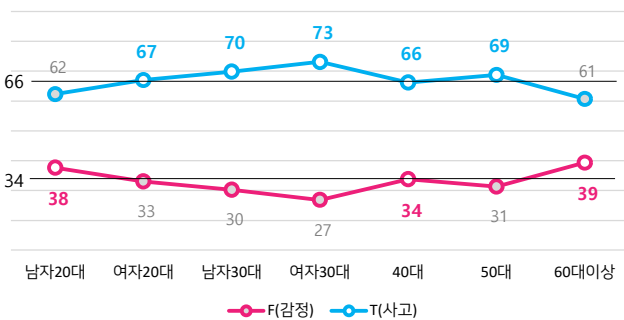
윤 대통령, I(내향) vs E(외향)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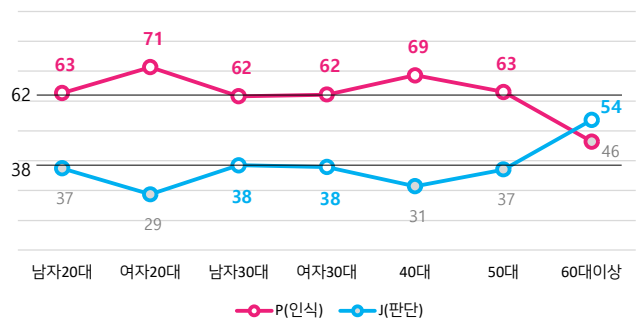
윤 대통령, N(직관) vs S(감각)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F(감정) vs T(사고)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P(인식) vs J(판단)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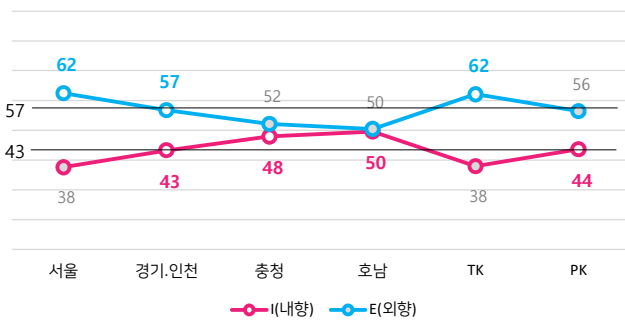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TI 조사결과, 성/연령별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속성은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기보다, 논리적·분석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사고형 T)’는 점임
- ☑ 다른 속성의 경우 성/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주로 60대 이상의 생각이 다름
 - : 60대 이상은 다른 성/연령보다 높은 비중으로 윤 대통령이 ‘외향형 E’ 이라 생각하고,
 - : 다른 성/연령층 모두가 윤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인식형 P)’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사전계획을 중시한다(판단형 J)’는 의견이 우세함
 - : 또한 다른 성/연령층보다 ‘현재를 중시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한다(감각형 S)’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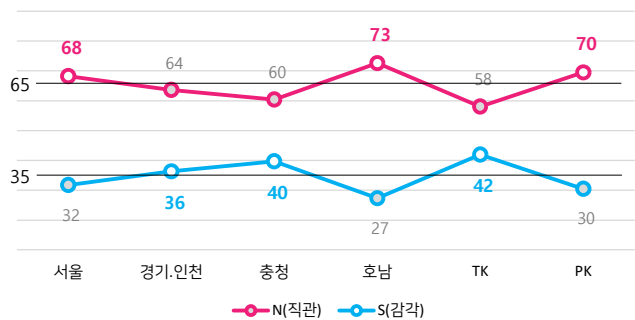
□ TK 지역과 다른 지역 간 생각의 차이 존재

- 지역별로 살펴보면, 'F(감정) vs T(사고)' 속성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T(사고형)'이라는 의견을 나타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속성 색깔 숫자, 낮으면 회색 숫자로 표기함
- 'N(직관) vs S(감각)' 속성은, 충청과 TK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비슷한 비중으로 'N(직관형)'으로 생각함
 - 충청과 TK지역은 상대적으로 'S(감각형)' 비중이 높음
- 'P(인식) vs J(판단)' 속성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P(인식형)' 의견이 우세하지만, 서울과 TK 지역은 'J(판단형)'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I(내향) vs E(외향)' 속성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다소 존재함
 - 서울, TK지역은 국민전체 생각(E, 외향형 우세) 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E(외향형)' 이라고 생각함
 - 경기.인천과 PK는 국민전체 생각과 비슷하고, 충청과 호남은 'I(내향) vs E(외향)' 비중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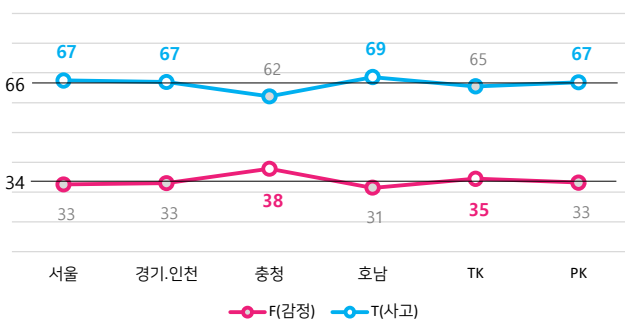
윤 대통령, I(내향) vs E(외향)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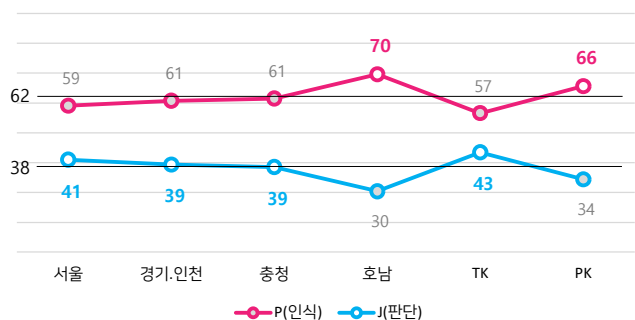
윤 대통령, N(직관) vs S(감각)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F(감정) vs T(사고)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P(인식) vs J(판단)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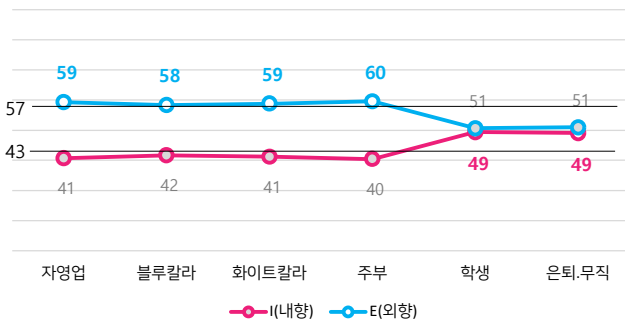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역별로 분명한 의견일치를 보이는 속성은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기보다, 논리적·분석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사고형 T)'는 점으로, 이는 앞서의 성/연령별 생각과 동일함
- ☑ 다른 속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특히 TK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함
 - : TK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사전계획을 중시한다(판단형 J)'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고, '현재를 중시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한다(감각형 S)'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많음
- ☑ 한편, 윤 대통령이 내향형(I)인지, 외향형(E)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앞서 성/연령별도 이점에 대한 생각이 달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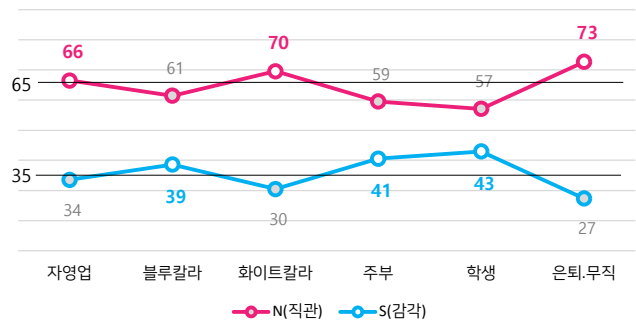
□ 윤 대통령 '내향, 외향에 대한 생각, 직업별로도 달라

- 직업별로 살펴봐도, 'F(감정) vs T(사고)' 속성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이 국민전체 의견과 유사한 비중으로 'T(사고형)'이라는 의견을 나타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속성 색깔 숫자, 낮으면 회색 숫자로 표기함
- 'N(직관) vs S(감각)' 속성은, 주부와 학생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들은 비슷한 비중으로 'N(직관형)'으로 생각함
 - 주부와 학생은 상대적으로 'S(감각형)' 비중이 높음
- 'P(인식) vs J(판단)' 속성에서는 학생과 은퇴.무직자의 'P(인식형)' 의견이 특히 높음
- 한편, 'I(내향) vs E(외향)' 속성의 경우 직업별로 의견이 다소 다름
 -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 등은 국민전체 생각(E, 외향형 우세)과 비슷한 비중으로 'E(외향형)' 이라고 생각함
 - 이에 비해 학생과 은퇴.무직자는 'I(내향) vs E(외향)' 비중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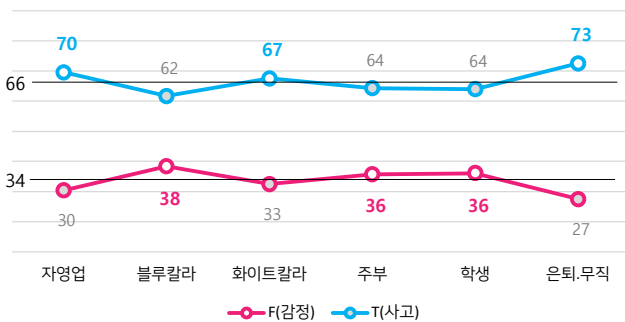
윤 대통령, I(내향) vs E(외향)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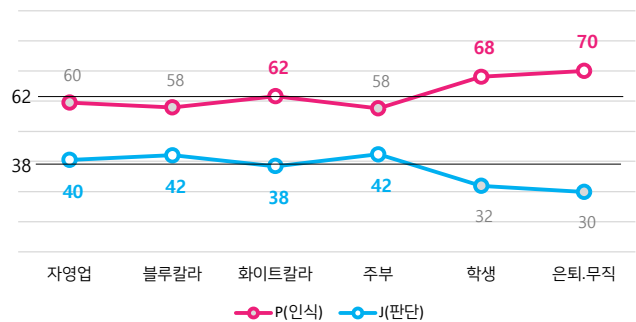
윤 대통령, N(직관) vs S(감각)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F(감정) vs T(사고)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P(인식) vs J(판단)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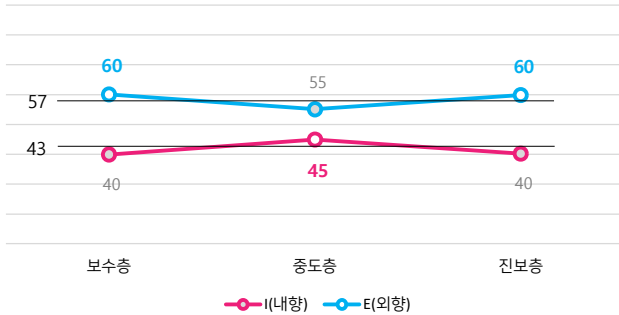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윤 대통령이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기보다, 논리적·분석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사고형 T)'는 생각은 성/연령별, 지역별에 이어 직업별에서도 의견이 일치함
- ☑ 또한 윤 대통령이 '내향형' 인지 '외향형' 인지에 대한 생각 역시 성/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모두에서 생각이 다름 : 그만큼 윤 대통령의 에너지 방향에 대한 국민의견은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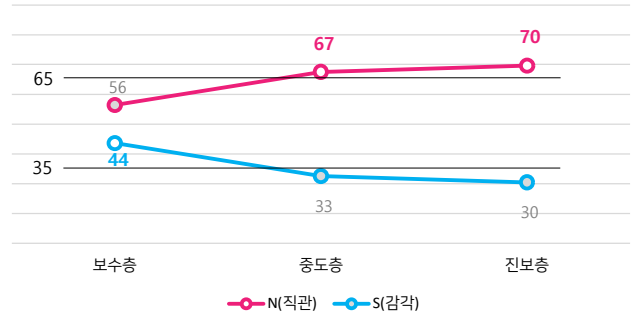
□ 윤 대통령 MBTI에 대한 보수층 생각, 다른 이념층과 달라

- 윤 대통령에 대한 4가지 기본속성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먼저 ‘I(내향) vs E(외향)’ 속성에 대해 모든 이념층이 국민전체와 비슷한 수치로 ‘E(외향)’이라고 응답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속성 색깔 숫자, 낮으면 회색 숫자로 표기함
-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는 보수층과 중도·진보층 간에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N(직관) vs S(감각) 속성 : 중도·진보층, 직관형(N) 우세 / 보수층, 상대적으로 감각형(S) 비중 높음
 - F(감정) vs T(사고) 속성 : 중도·진보층, 사고형(T) 우세 / 보수층, 상대적으로 감정형(F) 비중 높음
 - P(인식) vs J(판단) 속성 : 중도·진보층, 인식형(P) 우세 / 보수층, 절대적으로 판단형(J)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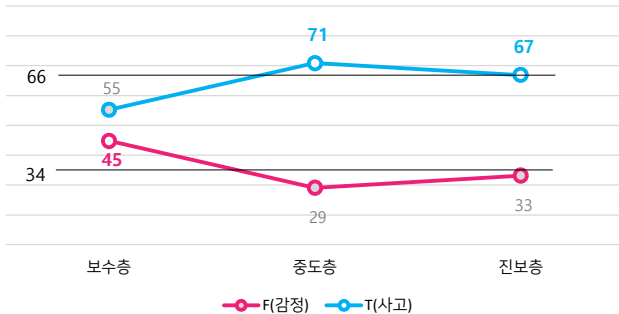
윤 대통령, I(내향) vs E(외향)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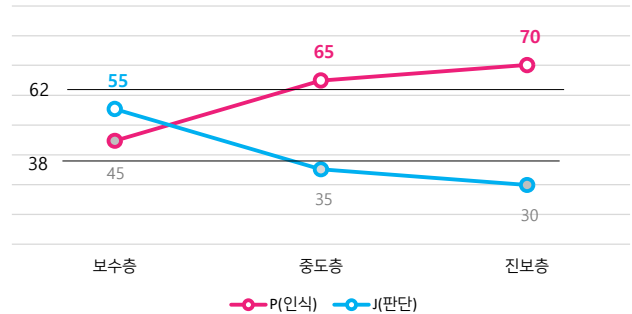
윤 대통령, N(직관) vs S(감각)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F(감정) vs T(사고)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윤 대통령, P(인식) vs J(판단)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 ☑ 윤 대통령에 대한 MBTI 기본속성 중 국민 전체적으로나 계층별로 의견이 일치된 속성은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기보다, 논리적·분석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사고형 T)’는 점이었음
 - : 국민전체 의견을 비롯해 성/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의견이 일치한 지점임
- ☑ 하지만 이념별로는 보수층의 경우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한다(감정형 F)’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 ☑ 또한 중도·진보층은 윤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인식형 P)’고 생각하는데, 보수층은 ‘사전계획을 중시한다(판단형 J)’는 의견이 우세함
- ☑ 한편, 국민 전체적으로나 계층별로 의견이 분분했던 속성, 즉 윤 대통령이 ‘내향형’ 인지 ‘외향형’인지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이념별 차이가 거의 없었음
 - : 이념을 떠나 모두 윤 대통령이 ‘외향형’이라고 생각함

국민과 윤 대통령 MBTI 기본 성향 비교

국민들, 자신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달라

- 국민이 생각하는 윤 대통령 MBTI 속성을 국민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면, 4가지 속성 모두가 정 반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MBTI 속성과 윤 대통령에 대한 MBTI 속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에너지 방향 : 국민 자신, 내향형(I) 우세(67%) vs 윤 대통령, 외향형(E) 우세(57%)
 - 인식기능(정보수집) : 국민 자신, 감각형(S) 우세(63%) vs 윤 대통령, 직관형(N) 우세(65%)
 - 판단기능(판단,결정) : 국민 자신, 감정형(F) 우세(69%) vs 윤 대통령, 사고형(T) 우세(66%)
 - 이행양식, 생활양식 : 국민 자신, 판단형(J) 우세(79%) vs 윤 대통령, 인식형(P) 우세(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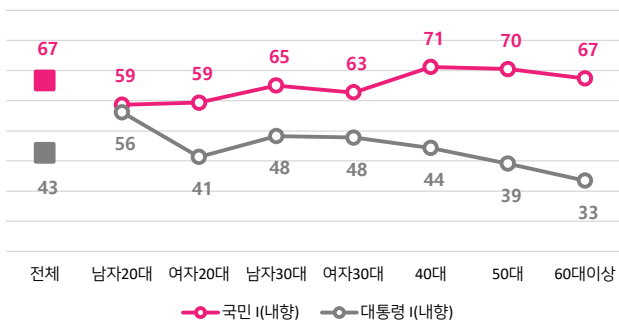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은 ‘내향적이면서 감각적이고, 감정형이면서 판단형’임
 - : 즉, 에너지 방향 면에서는 사교적·정열적·활동적이기보다, 조용하고 신중하며(내향형 I)
 - : 미래의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기보다, 현재를 중시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하며(감각형 S),
 - :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보다,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며(감정형 F),
 - :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보다, 사전계획을 중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판단형 J)
- ☑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이와 정반대로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이고, 사고형이면서 인식형’임
- ☑ 이번 MBTI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정반대 성격, 성향을 갖고 있음
 - : 이러한 차이가 현실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는 불명확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과 성향, 판단기준 등이 다르다는 점만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국민전체 MBTI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62호 『한국인 MBTI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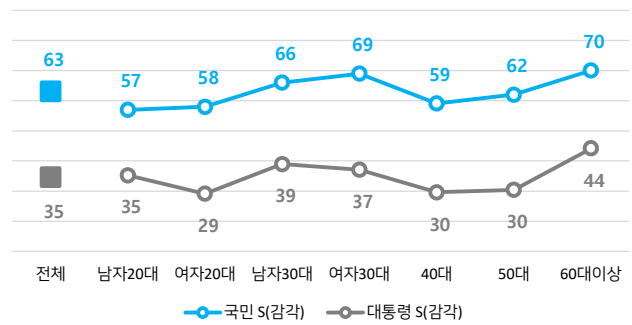
□ 성/연령별 : 자신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차이 커

- MBTI 4가지 속성에 대해 국민이 우세한 방향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큼
 - 에너지 방향 : 국민 내향형(I) 67%, 윤 43% 인식기능(정보수집) : 국민 감각형(S) 63%, 윤 35%
 - 판단기능(판단,결정) : 국민 감정형(F) 69%, 윤 34% 이행양식, 생활양식 : 국민 판단형(J) 79%, 윤 38%
- 이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속성에 걸쳐 차이가 많음
 - 에너지 방향에 대해 모든 성/연령이 스스로가 '내향형(I)'이라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향형(I)'이라는 생각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그만큼 격차가 큼 (단, 20대 남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거의 비슷함)
 - 인식기능에 대해서는 모든 성/연령이 스스로를 '감각형(S)'이라 생각하지만, 윤 대통령이 '감각형(S)'이라는 생각은 낮음
 - 판단기능(감정형 F 우세), 생활양식(판단형 J 우세) 등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간의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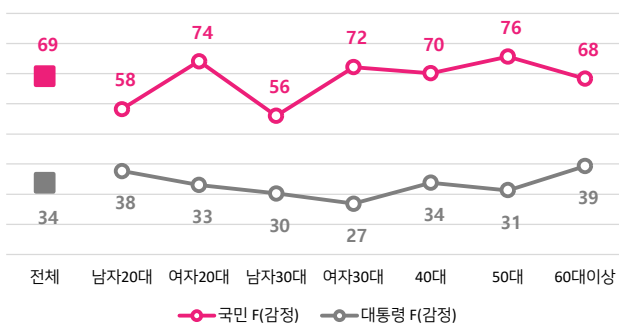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에너지방향 'I(내향)' 비교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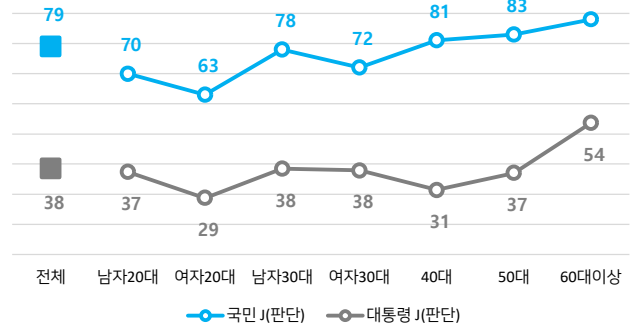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인식기능 'S(감각)' 비교 : 성/연령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판단기능 'F(감정)' 비교 : 성/연령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생활양식 'J(판단)' 비교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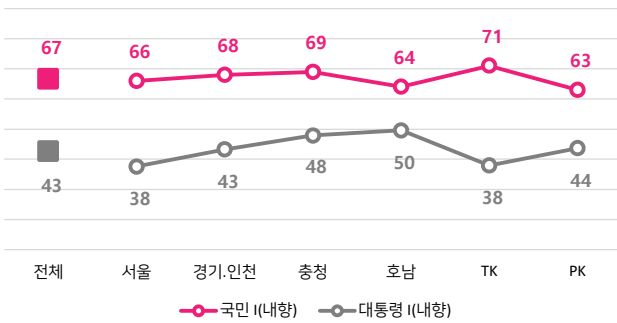
Kstat Point

- ☑ MBTI 기본 속성 4가지에 대한 자신과 윤 대통령의 생각을 성/연령별로 비교하면, 모든 속성에 대해 거의 모든 성/연령의 생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단, 에너지 방향에 대한 20대 남자의 생각은 거의 비슷함
- ☑ 이러한 성격, 성향, 판단기준의 차이 등을 볼 때, 국민과 윤 대통령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국민 전체적이나 성/연령별로나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사고형 T)보다,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감정형 F)하는 비중이 많은 점은, 여권이 주목해야 할 지점임
 - : 즉,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시, 국민들은 논리가 아닌 감성을 중시하고 있음
 - :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윤 대통령은 논리를 중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만큼 '정서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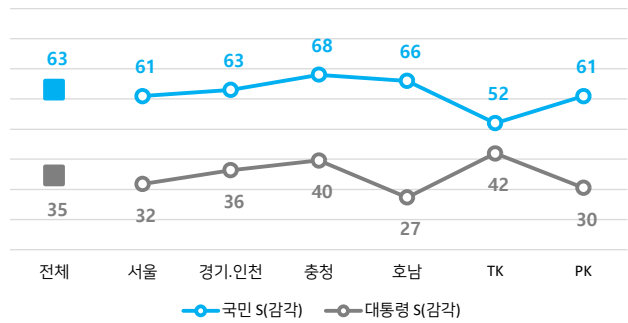
□ 지역별 : 차이 없는 가운데, TK 지역 '인식기능' 격차 적어

- MBTI 4가지 속성에 대해 국민이 우세한 방향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속성에 걸쳐 차이가 많음
- 먼저 에너지 방향에 대해 모든 지역이 스스로가 '내향형(I)'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향형(I)'이라는 생각은 적음
- 인식기능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스스로를 '감각형(S)'이라고 생각하지만, 윤 대통령이 '감각형(S)'이라는 생각은 TK 지역 외에는 낮음
 - TK 지역은 유일하게 자신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차이가 10%p에 그침
- 판단기능(감정형 F 우세), 생활양식(판단형 J 우세) 등도 전 지역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간의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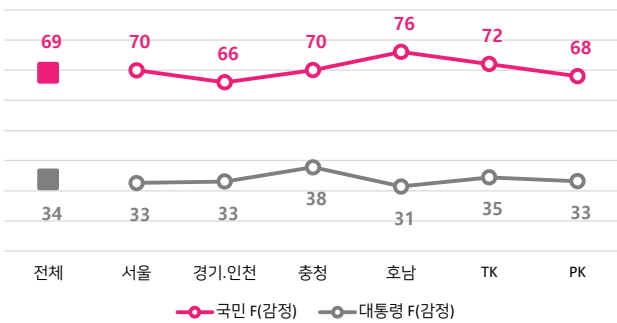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에너지방향 '내향' 비교 : 지역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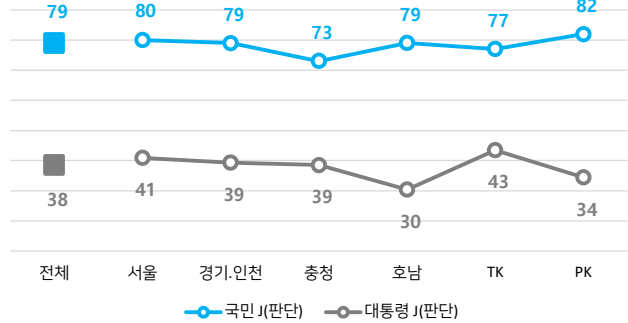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인식기능 'S(감각)' 비교 : 지역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판단기능 'F(감정)' 비교 : 지역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생활양식 'J(판단)' 비교 : 지역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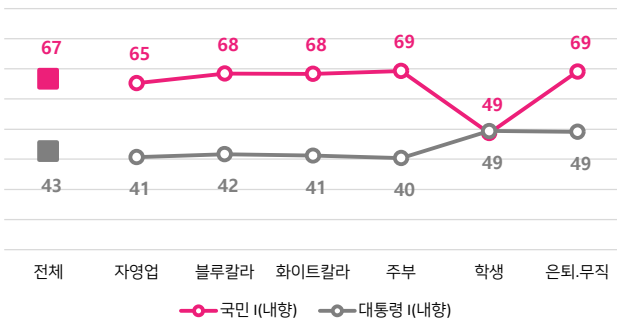
Kstat Point

- ☑ MBTI 기본 속성 4가지에 대한 자신과 윤 대통령의 생각을 지역별로 비교할 때, 모든 속성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각 차이가 큼
 - : 다만, 인식기능에 대한 TK 지역의 간격은 적은 편임
- ☑ 자신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차이는 성/연령별에 이어 지역별로도 상당함
- ☑ 앞서 성/연령별과 동일하게 지역별로도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사고형 T)보다,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감정형 F)하는 비중이 많으며, 윤 대통령은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사고형 T)을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 여론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 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이미지 전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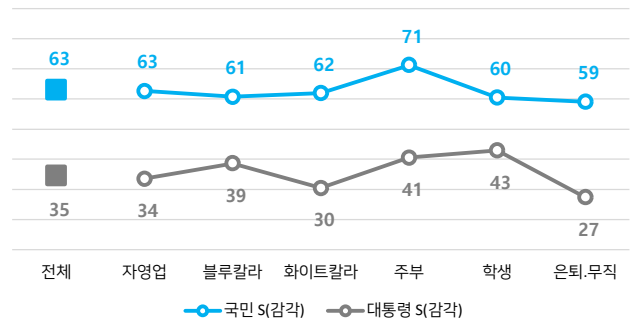
□ 직업별 : 큰 차이 없고, 학생층만 '에너지 방향' 동일

- 국민 자신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직업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속성에 걸쳐 차이가 많이 나타남
- 먼저 에너지 방향에 대해 모든 지역이 스스로가 '내향형(I)'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형형(I)'이라는 생각은 적음
 - 단, 학생은 자신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동일함
- 인식기능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에서 스스로를 '감각형(S)'이라고 생각하지만, 윤 대통령이 '감각형(S)'이라는 생각은 낮음
- 판단기능(감정형 F 우세), 생활양식(판단형 J 우세) 등도 전 직업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간의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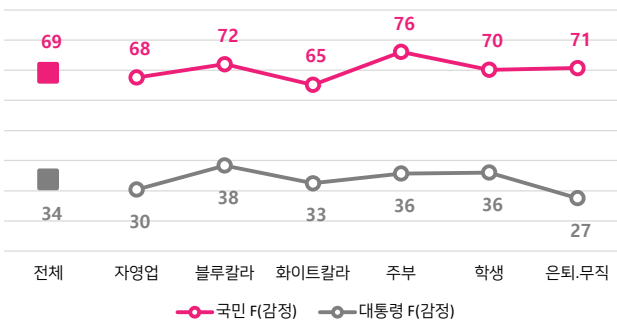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에너지방향 'I(내향)' 비교 : 직업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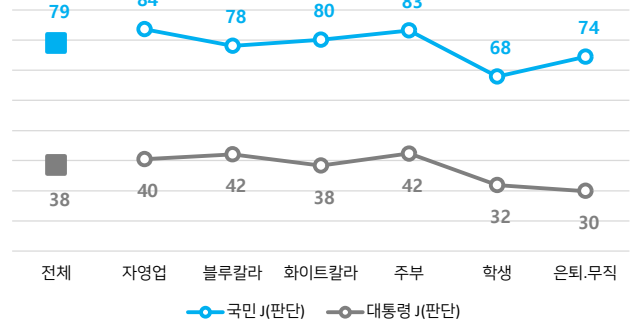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인식기능 'S(감각)' 비교 : 직업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판단기능 'F(감정)' 비교 : 직업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생활양식 'J(판단)' 비교 : 직업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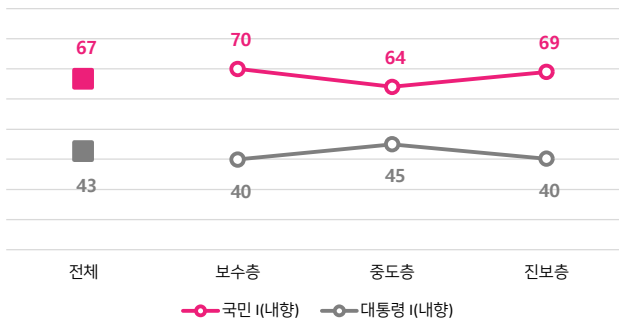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전체적으로나 성/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국민 자신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차이가 현실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30% 전후에 머물고 있음
 - :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적 문법으로 이를 조망하는 것이 적절함
 - : 다만,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성격과 성향, 판단기준 등의 차이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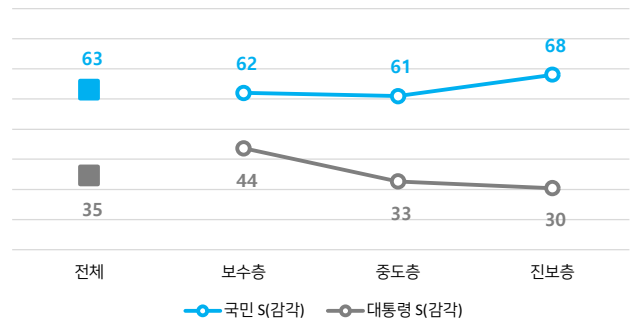
□ 이념별 : 보수층, 대부분 속성에서 상대적으로 격차 적어

- 국민 자신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주관적 이념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속성에 걸쳐 차이가 많음
- 먼저 에너지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이념성향이 스스로를 '내향형(I)'이라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향형(I)'이라는 생각은 적음
- 인식기능(감각형 S 우세), 판단기능(감정형 F 우세), 생활양식(판단형 J 우세) 등도 모든 이념층에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간의 차이가 큼
- 다만, 보수층의 경우 인식기능, 판단기능, 생활양식 등에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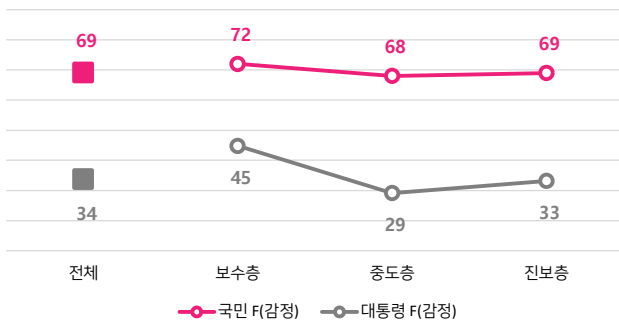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에너지방향 'I(내향)' 비교 : 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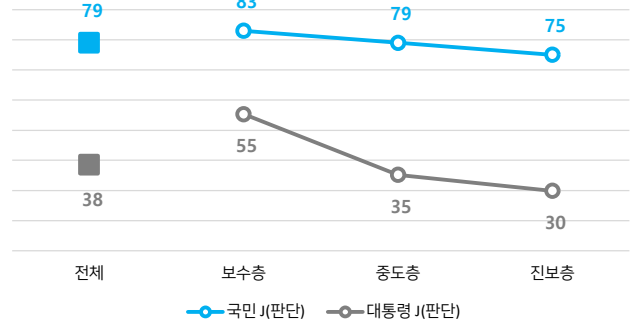
국민과 윤 대통령, 인식기능 'S(감각)' 비교 : 이념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판단기능 'F(감정)' 비교 : 이념별 (단위:%)



국민과 윤 대통령, 생활양식 'J(판단)' 비교 : 이념별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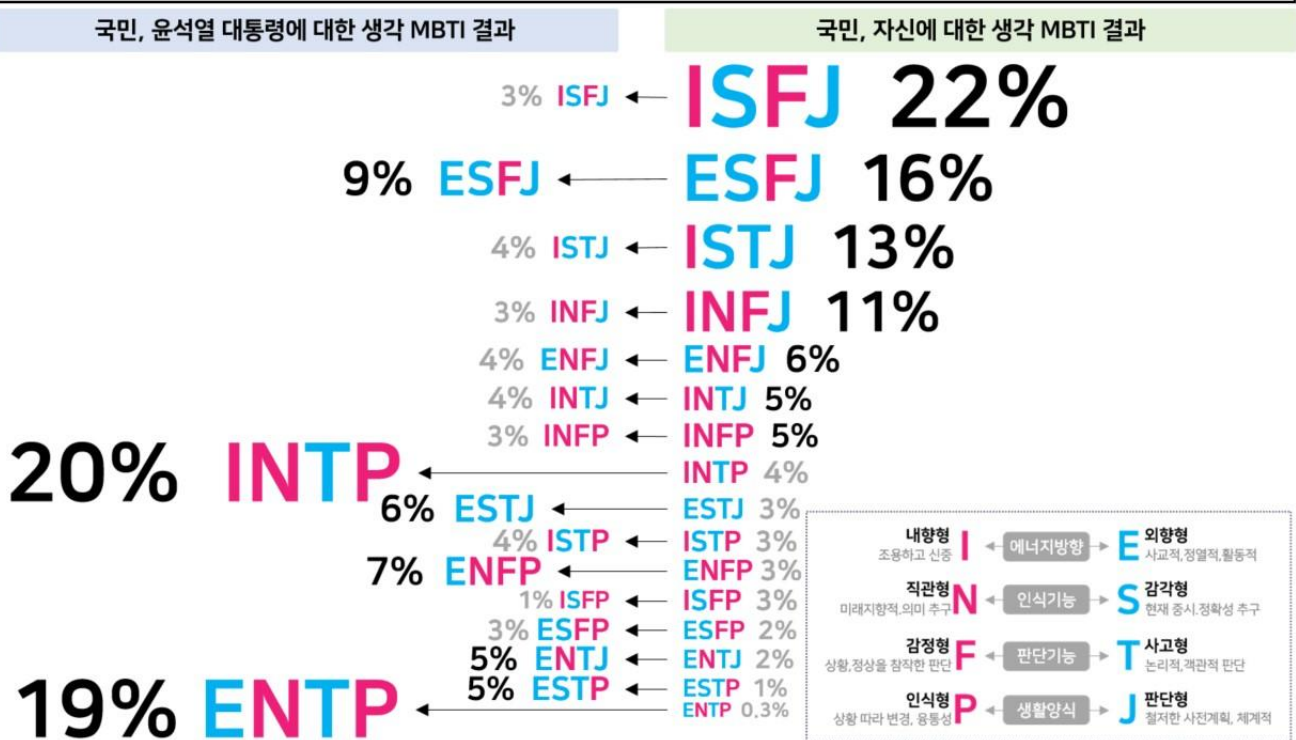
- ☑ 보수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과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 차이가 적음
 - : 이렇듯 성격과 성향, 판단기준 등의 차이가 적어 보수층이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는 알 수 없음
 - : 다만, 중도층과 진보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적은 점은 주목됨
- ☑ 그간의 정치 분석은 주로 정치·사회적 측면에 주목하고, 조사 역시 정치·사회이식에 집중되어 왔음
 - : 이번의 MBTI 조사 분석은 국민의 생각을 다각적으로 조명해, 정치·사회이식 분석에 입체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
 - : 여러가지 한계가 있지만, 국민과 윤 대통령간의 성격, 성향, 판단기준 등이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유의미한 조사결과로 보임
 - :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민의 정치·사회이식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계획임

윤 대통령 MBTI 유형화 결과 분석

국민이 많은 MBTI 유형과 윤 대통령 MBTI 유형 달라

- ‘MBTI’는 앞서의 4가지 속성별 구분에 따라 총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함
 -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등의 속성에 따라 대별되는 INFP와 ESTJ를 조합하면 모두 1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됨
- 조사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유형은 ISFJ로 22%를 차지하고, 다음은 ESFJ가 16%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ISTJ 13%, INFJ 11% 순임
- 이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TI 유형은 국민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유형들임
- 윤 대통령 MBTI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INTP(20%)인데 국민적으로는 4%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ENTP(19%)는 국민적으로 0.3%임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 MBTI 유형 현황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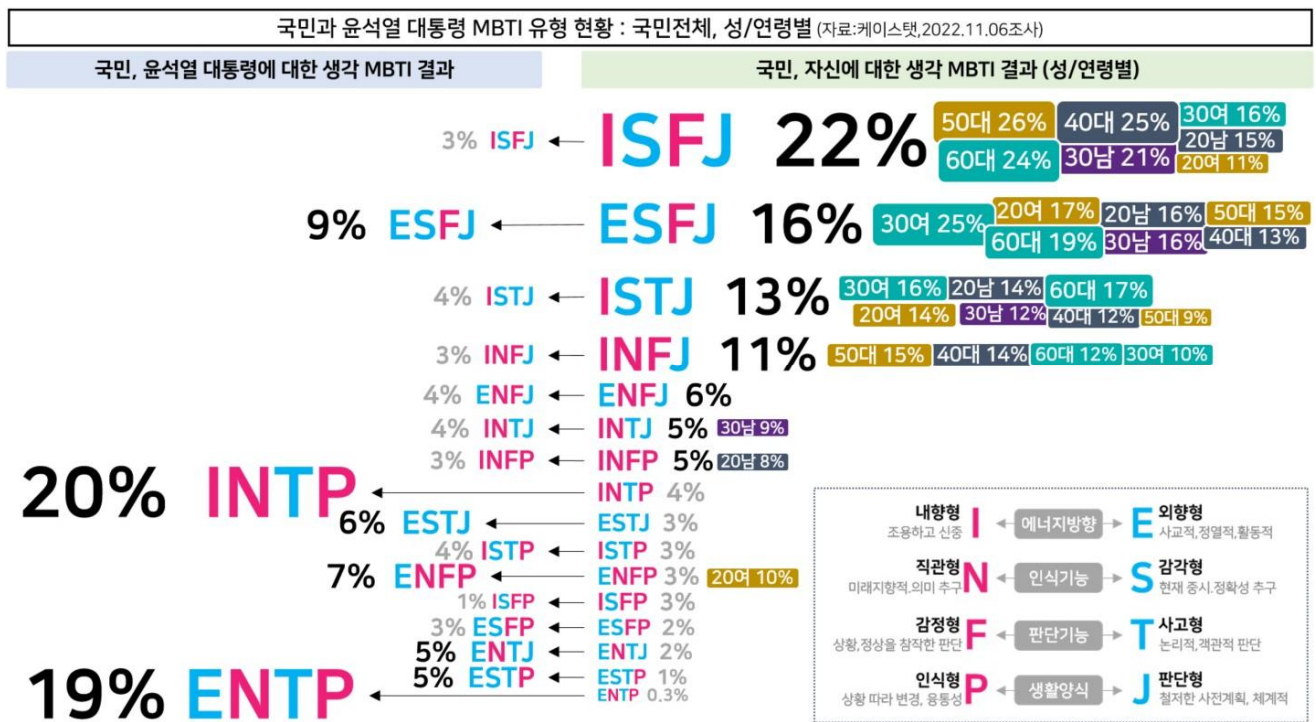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한 MBTI 유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생각한 MBTI 유형은 차이가 많음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TI 유형은 INTP와 ENTP가 많지만, 두 유형 모두 국민적으로는 비중이 적음
 - : 그만큼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해줌
- ☑ 한편,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1월 30일 공개한 자신의 MBTI는 ENFJ임
 - : ENFJ는 국민적으로 6%이고, 국민이 생각한 윤 대통령 것으로는 4%로 비교적 차이가 적음

□ 성/연령별로 다수가 속한 MBTI 유형과도 차이 많아

- MBTI 16개 유형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많은 ISFJ, ESFJ, ISTJ, INFJ에 집중되어 있음
 - 아래 그림은 성/연령별 MBTI 상위 4개 유형을 기록한 것임
 - 국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ISFJ에 4060세대 다수가 위치해 있고, 국민 전체적으로 2위인 ESFJ에는 2030세대 다수가 위치함
-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TI 유형과 비교하면, 대체로 성/연령별 다수가 위치한 MBTI 유형과 다름
- 가장 공통적인 유형은 ESFJ(윤 대통령 9%)로, 30대 여자와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이 속해 있음
 - 또한 ENFP(윤 대통령 7%)도 20대 여자 중 10%가 속한 유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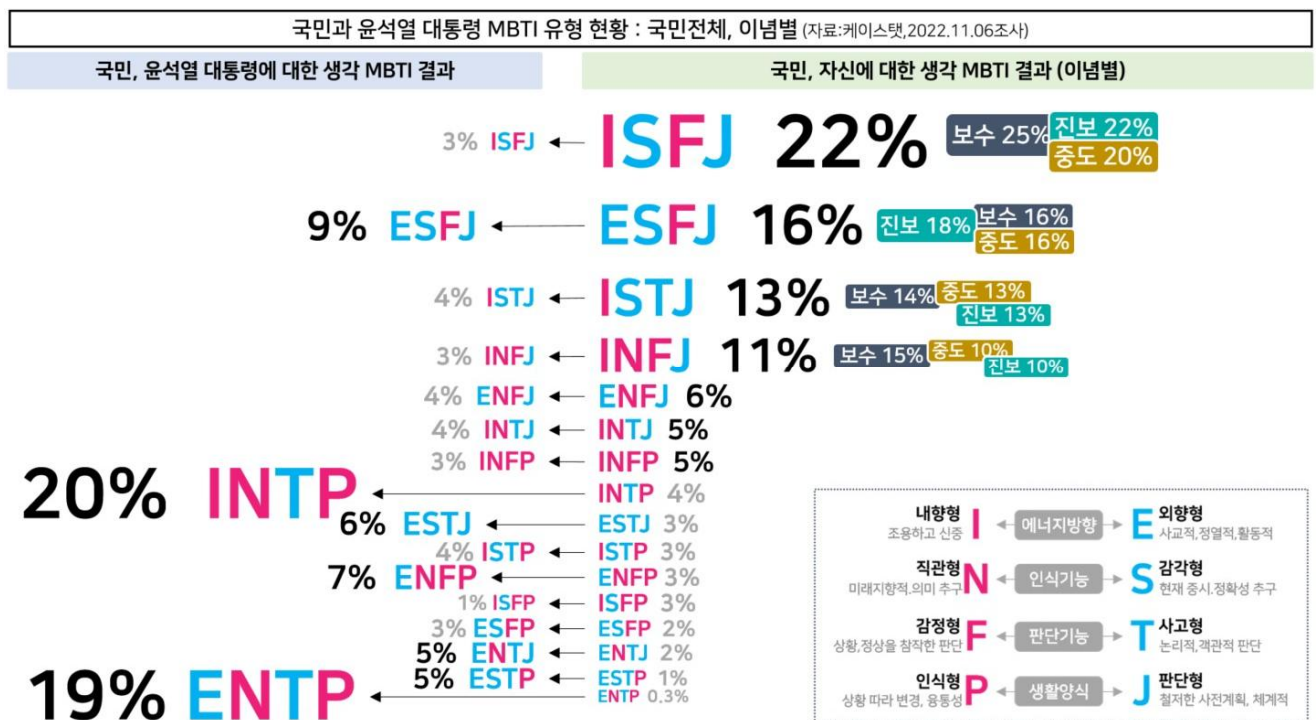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ISFJ(22%)는 주로 4060세대가 많이 위치하고, 다음으로 많은 ESFJ(16%)에는 주로 2030세대가 위치해 있음
 - : ISFJ와 ESFJ는 앞 글자, 즉 I(내향형)와 E(외향형)의 차이를 제외하면, 다른 속성은 모두 같음
 - : 즉, 4060세대는 내향형이 많고, 2030세대는 외향형이 많아 세대가 다수를 점하는 MBTI 유형이 달라짐
- ☑ 이에 비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생각한 유형 중 높은 비중을 기록한 INTP, ENTP 역시 앞 글자, 즉 I(내향형)와 E(외향형)의 차이를 제외하면, 다른 속성은 모두 같음
 - : 윤 대통령이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에 대해서만 생각이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함
 - : 내향, 외향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 대통령은 '직관형(N)', '사고형(T)', '인식형(P)'임

□ 이념별 MBTI 유형 비교에서도 다수와 차이 존재

- MBTI 16개 유형을 이념별로 살펴보면 국민전체와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냄
 - 아래 그림은 이념별 MBTI 상위 4개 유형을 기록한 것임
- 국민전체적으로 1위인 ISFJ에 보수(25%), 중도(20%), 진보(22%) 모두 가장 많이 위치함
 - 이하 국민전체적으로 2위, 3위, 4위에 보수·중도·진보 역시 비슷한 규모로 위치해 있음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TI 유형과 비교하면, 대체로 이념별 다수가 위치한 MBTI 유형과 다름



Kstat Point

- ☑ 국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한 MBTI 유형을 종합하면, 지역이나 이념과는 별 다른 차이가 없고, 성/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짐
 - : 최근 각종 사회여론 조사에서 이러한 특징이 강화되는 흐름임
- ☑ 또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생각한 MBTI 유형과 성/연령별, 이념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MBTI 유형은 매우 다름
- ☑ 향후,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현실적·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추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지점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4, 6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4호와 65호는

각각 12월 8일(목요일), 12월 22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12월 사회지표는 12월 1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